

# 개화기 여성 선교사들의 사회적이고도 문학적인 모임 연구

지유리\*

서울 유니온 클럽의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으로부터

**초록** 본 연구는 개화기 말 조선에 거주하였던 외국인 여성들의 서울 유니온 클럽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이고도 문학적인 성격을 띠는 이 여성 모임이 개화기 조선의 여자 선교사들에게 줄 수 있었던 근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역사 정리 등 여러모로 기초적인 연구가 될 것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 근대적인 “여성” 개념 형성에 조선이라는 사회가, 선교라는 활동이, 그것에 지원한 여자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들의 문학 읽기 활동이 진보적인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수적으로는 19세기 말 조선에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셰익스피어가 국내에 다양한 모습으로 20세기 이전에 유입되었다는 최근 셰익스피어 유입사 논의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주제어** 개화기, 여성 선교사, 서울 유니온, 문학, 독서, 셰익스피어

## 1. 들어가며

영문학의 “정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셰익스피어를 떠올린다. 국내에도 셰익스피어는 다른 영문학에 비해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자는 최근 개화기 말 조선에 유입된 한 영어 원서를 통해 20세기 이전에도 국내에서 셰익스피어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있었다.<sup>1</sup> 이후 필자는 19세기 말 조선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영어 사료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본 연구는 그 과정에서 발견한 다음의 한 셰익스피어 사례로부터 출발한다.

기나긴 검색 과정을 간단히 말하면, 필자는 조선에서 발행된 최초의 영어 신문에서 셰익스피어 관련 기사를 찾게 된다. 국내 최초의 민간 신문이자 순 한글 신문으로 알려진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처음 발행되었다. 갑오개혁으로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는 등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여러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그러한 개혁의 필요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와 불안만 조성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개화파의 지지 아래 『독립신문』이 발간되는데,<sup>2</sup> 창간호 논설도 “남녀 노소 상하 귀천” 없이 많은 사람이 이 신문을 읽어 “소견과 지혜가 진보”되기를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밝히고 있다.<sup>3</sup> 그리고 그러한 취지에서 한글판 3면과 동시에 영문판 1면도 발행되는데, 바로 이 『독립신문』의 영문판이 국내 최초의 영어 신문이다.

『독립신문』 창간호의 “논설”은 영어로도 신문을 발행하는 이유가 “외국 인민이 … 편벽 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려는 데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독립신문』 영문판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정치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독립신

1 자유리(2022), 「국내 셰익스피어 유입사 다시 보기: 1894년경의 장봉환의 사례에 관하여」, *Shakespeare Review* 58(2) 참조. 그 이전까지는 『조양보』(朝陽報)에 소개된 “셰익스피어”[朝陽報社(1906), 『朝陽報: 第貳號』, 국회전자도서관, p. 5]를 바탕으로 국내에 셰익스피어가 수용된 시기를 1906년 무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셰익스피어 수용사 연구의 토대가 되는 연구로 신정옥(1998), 『셰익스피어 한국에 오다: 셰익스피어의 韓國受容過程研究』, 백산출판사 참조.

2 채백(2006), 『독립신문 연구』, 한나래, pp. 47-52 참조.

3 『독립신문』, 獨立新聞社, 1896.4.7., p. 1. 『독립신문』의 현대 한글 번역은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디지털 서비스의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 창간 이듬해인 1897년 1월부터 국문판과 영문판이 분리되어 발행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영문판이 4면으로 늘어나며 뒤에서도 잠시 살펴보겠지만 생활 광고나 지역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되어 발행된 『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의 “국내 기사”(LOCAL ITEMS)에서 셰익스피어 관련 기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서울 유니온의 여성 클럽의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 기사이다.

본 연구는 따라서 우선 개화기 말 조선에 거주하였던 이 외국인 여성들의 서울 유니온 클럽 모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클럽 모임 중 문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활동이 “개화된” 혹은 “근대화된” 여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 선교사들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된 역사를 정리하는 등 여러 모로 기초적인 연구가 될 것이지만, 조선에 유입된 셰익스피어 사례를 추적하던 한 영문학자의 연구가 여성학, 선교 역사학, 한국학 등 다른 학문 영역으로 확장되는 학제 간 연구 과정을 살핀다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부수적으로는 19세기 말 조선에서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국내에 셰익스피어는 1906년 이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유입되었다는 최근 셰익스피어 유입사 논의에 보탬이 되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개화기 조선에 거주하였던 외국인 여성 중 특히 선교사에 주목하게 된 데에는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류대영에 의하면 국내의 외국인 여성 선교사 연구는 2천년대부터 본격화되었는데,<sup>4</sup> 국내 선교의 역사에 비하면 개화기 여선교사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소수인 것 같다. 그래서 개별 여선교사의 행적을 추적하거나 개별 저서를 수집하여 그 의의나 가치를 밝히는 기초적인 연구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sup>5</sup> 다만 이들 연구가 외국인 여선교사들을 주부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

4 류대영(2017), 「해방 이전 한국 개신교 여성에 관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p. 200.

5 박보경(2017), 「에니 베어드(Annie L. A. Baird)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한 고찰」, 『장신논

하며 남편의 선교를 돕는 부인 선교사와 의료계나 교육계 직업을 가진 독신 선교사로 나누어 연구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기에,<sup>6</sup> 이들 여성 선교사가 모두 함께 활동하는 서울 유니온 클럽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신여성”으로 서로 연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본 연구는 개회기 여성 선교사들이 보여 준 근대적인 여성 개념에 주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한국학과 선교사학의 여성 선교사 연구를 계승하고 있지만, 기혼 선교사와 미혼 선교사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하나의 여성 공동체로 함께하는 사회활동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물론 이러한 신여성으로서의 연대에 문학 관련 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고자 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개회기 외국인 여성 선교사들의 서울 유니온 클럽 활동이 미국 중산층 사회의 문화를 들여와 조선에 문화적 식민주의를 자리 잡게 한 측면도 있지만, 문학을 공동체적 행위로 향유함으로써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집 안이 아닌 집 밖의 사회에서도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주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인문학의 여러 방면에 걸친 학문 간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되어야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기에, 그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며 서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20세기 이전 사료에 대한 접근성이 이전보다 매우 좋아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앞서 인용한 『독립신문』 “논설”의 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단』 49(4); 윤정란(2009), 「19세기말 조선의 안방을 찾은 미국 여성의 욕망: 여선교사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ton Underwood)를 중심으로」, 『叻林』 34; 오지석(2001), 「근대전환기 내한선교사의 선교사역과 한국문화이해: 안애리(安愛理)의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1913)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4) 참조.

6 안신(2015), 「메리 스크랜튼과 클라라 하워드의 교육선교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28; 류대영(2012), 「매티 노블(Mattie W. Noble)의 일지: 한 부인 선교사의 삶과 ‘여성의 영역(Women’s Sphere)’」, 『東方學志』 160; 김성은(2007), 「로제 타 홀의 조선여의사 양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참고.

화 작업이 진행된 자료들은 친절하게도 현대 한글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여 한자나 옛날 한글 독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국내 셰익스피어 유입사 연구가 최근에서야 20세기 이전의 자료에 주목하게 된 것도 이러한 접근성 향상이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 또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편년 자료 서비스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신문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하여 1906년 이전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영어자료를 검색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영어로 셰익스피어(Shakespeare)라고 키워드 검색을 하면 찾아지는 영문판 『독립신문』 자료는 단 4가지이다.<sup>7</sup> 하지만 실제로 『디 인디펜던트』를 발간호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니 이보다 훨씬 많은 셰익스피어 관련 기사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적어도 영문학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참고가 될 뿐, 존재하는 여러 아카이브와 원본 파일 혹은 원본의 교차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국내 대학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한 독일 출신 연구자가 아마도 필자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과정을 거쳐 조선에서의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블로그 글로 남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8</sup> 이를 통해 2015년에 해당 기록을 남겼지만, 국내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학제 간 소통이 잘되지 않는 국내 인문학 연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었다. 또 국내에서 발간된 영문 자료의 온라인 색인/검색과 그 확인 작업이 충분히 되지 않

7 『디 인디펜던트』의 1897.12.16., 1898.1.13., 1898.1.27., 1898.11.1. 기사이다. 이 중 독서 모임 관련 글이 앞의 3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독자 투고”(Correspondence)에 기고된 “셰익스피어의 지식”(Shakespeare’s Knowledge)이라는 글이다.

8 Jan Creutzenberg (2015), “Foundlings: Shakespeare Readings in 19th Century Korea (Theatre and Globalization 3),” 2015.6.13., *Seoul Stages*. <https://seoulstages.wordpress.com/2015/06/13/foundlings-shakespeare-readings-in-19th-century-korea-theatre-and-globalization-3/>(접속일: 2022.7.20.)

왔을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로그의 글은 연구라고 하기에는 짧은 기록에 머물고 있었지만, 위에서 밝혔듯이 키워드 검색으로 발견되는 『디 인디펜던트』의 단 3개의 독서 모임 기사를 바탕으로 해당 모임의 날짜와 성격을 잘못 유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 검색을 통해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자들을 위해 온라인 자료의 영어 색인 작업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영문 자료들의 디지털화 작업에 있어 영어자료 읽기에도 능숙하고 국내 상황은 물론 영어권 사회의 사정도 잘 아는 국내 영문학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인데, 다음 장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이번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오류 사항도 조금씩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다.

## 2. 『디 인디펜던트』 속 셰익스피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Shakespeare”라는 영문 키워드로 검색되는 『디 인디펜던트』의 첫 번째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유니온 도서관에서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셰익스피어 독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그 시간에 정확히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스 켄뮤어 부인이 4시 정각에 차를 제공할 것입니다.<sup>9</sup>

『독립신문』영문판은 한글판과 독립되어 발행되기 시작한 이후 총 4면

9 The Independent, 獨立新聞社, 1897.12.16., p. 3.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 텍스트에는 “서울 유니온”의 원문 “the Seoul Union”이 “the Soul Union”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영어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 시 대문자로 기재된 고유명사(인명, 지명, 기관명 등)의 경우 특히 입력에 오류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으로 발행된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 관련 기사는 항상 “논설” 다음의 “국내 기사”에 실린다. 『독립신문』은 민간 신문으로 발행 비용을 구독료와 광고를 통해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창간호에서부터도 “일년에 일원 삼십전 한 달에 십이전 한 장에 동전 한 푼”이라고 신문 가격을 알리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돈을 내고 성명과 집을 알려 주면 신문을 보내 주고,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신문을 가져다 팔면 “열 장에 여덟 장만 셈하고 백 장에 여든 장만 셈”한다는 “광고”가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등장하고 있다.<sup>10</sup> 이는 분리되어 발행된 첫 번째 영문판 신문도 마찬가지여서, 『디 인디펜던트』 1면 첫 번째 기사도 다음과 같은 “광고”이다. 『디 인디펜던트』가 국내 유일의 영어 신문으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항구에 통신원을 두고 있으니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의 무역 시장을 선점하려는 업체들은 “광고 매체”인 『디 인디펜던트』에 일정한 광고료를 내고 광고 자리를 선점하라는 것이다.<sup>11</sup>

『디 인디펜던트』 1면에는 이렇게 광고 몇 가지와 해외 각국의 주요 사건과 사고를 알리는 “전보”와 “잡보”가 주로 실린다.<sup>12</sup> 그리고 이후 2면에 “논설”과 “국내 기사”, “관보”, “부처 소식”이 순서대로 실리는데, 위에서 인용한 1897년 12월 16일 셰익스피어 모임 기사는 이를테면 “국내 기사” 중에서도 축구 시합과 러시아 공사관 임명 관련 기사 사이에 실려 있다.<sup>13</sup>

10 『독립신문』, 1896.4.7., p. 1.

11 *The Independent*, 1897.1.5., p. 1.

12 『디 인디펜던트』가 분리되어 발행된 1897년 1월호부터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과 관련이 있는 1898년 12월까지의 1면 광고를 살펴본 결과, 식료품(버터, 치즈, 밀가루 등), 와인, 약제, 향수, 기도 모임 책, 화원, 자전거, 해외 배편 예약 등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광고들이 실려 있다. *The Independent*, 1897. 1. 12., p. 1에서와같이 “분실물”(Missing)이 “광고” 바로 다음에 올 때도 있다. 『디 인디펜던트』가 한국과 해외의 정세를 공유하는 매체이기 이전에 의식주 해결과 중요한 분실물(배송 상자 등)을 찾는 등 당시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일상과 연결된 중요한 의사소통 매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13 축구 기사는 국내 영어 학교 팀과 영국 공사관 팀 간의 시합 결과를 알려 주고 있다. 영국

국내 운항 배편 현황과 주중 기도 및 주일 예배를 알리는 “국내 기사” 총 5개 중 두 번째 기사인 것이다.

축구 시합 결과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각종 직책 임명과 정기적인 행사 전달보다는 『디 인디펜던트』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고 있는 이 세익스피어 독서 모임 관련 기사는, 이후 다른 날짜에 실린 글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위에서 인용한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항상 신문에 실리고 있다. 처음에 모임 장소와 시간이 공지되고, 마지막에 차가 제공되는 시간(보통 독서 모임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과 차를 제공하는 사람(여성)이 누구인지 기재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1897년 12월 16일 기사를 통해서도 세익스피어 독서 모임 시기(1897년 12월 17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모임 장소인 “서울 유니온 도서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연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유니온 클럽의 여성 모임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3. 서울 유니온: 여성, 여성 선교사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5. 22.) 이후 국내에 처음으로 입국한 의료선교사 호러스 뉴턴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은 『연대기 색인: 기독교 시대의 시작으로부터 20세기까지 한국의 외국인 교류에 있어서의 주요 사건들 몇몇』(*A Chronological Index: Some of the Chief Events in the Foreign Intercourse of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Twentieth Century*)이라는 책을 남긴다. 알렌은 1884년 9월 조선에 입국한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 시기에 관해 많은 질문을 받게 되어, 주변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

공사관 팀의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팀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 행사에 한국인이 참여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예이다.

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인쇄하여 나눠주기 위해 이 책을 발행하였다고 한다.<sup>14</sup> 공개적으로 발표할 용도는 아니었다지만, 다행히도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이 책은 서울 유니온에 대한 가장 빠른 설립연도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에 “서울 유니온”이라는 색인 아래에 정리된 정보에 따르면, 서울 유니온은 1888년 9월에 만들어졌고, 토지를 1890년에 사들여, 1891년에 건축물이 지어졌다고 한다.<sup>15</sup> 즉 서울 유니온은 모임 이름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임이 개최된 건물 이름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국내 선교사들은 사실 『디 인디펜던트』가 발간되는 것보다도 4년 정도 앞서 선교사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선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고 선교사 동정도 알리기 위하여 『코리아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라는 영문 잡지를 발행하였다.<sup>16</sup> 그리고 이 『코리아 리포지터리』의 1897년 12월호에서 서울 유니온이 회원들의 “레크리에이션”과 “사회적이고도 문학적인” 부분에서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라는 설명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이 서울 유니온이 정동 지역 중심에 벽돌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곳엔 3개의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봄과 가을에는 테니스를 정기적으로 치지만, 겨울이 가장 분주한 시기로 “여성 회원들의 빼어난 관리 아래” 독서, 음악, 강의 등이 진행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 이 여성 회원들이 준비한 모임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정보도 담겨 있다.<sup>17</sup>

서울 유니온 클럽을 만드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는 헨리 G.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가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되는데, 아

14 Horace Newton Allen (1901), *A Chronological Index: Some of the Chief Events in the Foreign Intercourse of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Twentieth Century*, Seoul: Press of Methodist Publishing House, p. 10.

15 Horace Newton Allen (1901), p. 22.

16 유영렬·윤정란(2004),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 경인한국학연구원서, pp. 3-5.

17 *The Korean Repository* (1897), Volume IV, New York: Paragon Book Reprint Corp., p. 480.

펜젤러에 대한 기록을 남긴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Griffis, 1843~1928)의 글에 의하면, 서울 유니온 건물에는 테니스장뿐만이 아니라 도서실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서실은 고국의 정기간행물들을 파일에 정리하여 진열해 두는 곳이었는데, 강연회, 토론회 장소로도 활용되는 다목적 공간이라는 설명도 등장한다.<sup>18</sup> 따라서 이 공간이 바로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이 열린 장소임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9</sup>

사실 서울 유니온은 『디 인디펜던트』에서 발견한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키워드였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네 번째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이 1898년 1월 14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열리며, 다섯 번째 모임이 1898년 1월 28일 역시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열린다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주고 있을 때, 서울 유니온과 관련된 『디 인디펜던트』 기사를 토대로 이 독서 모임의 참여자 구성과 특징, 후기 등을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문판과 분리되기 이전의 한 『독립신문』 영문판 기사는 서울 유니온 클럽의 여성 회원들이 유니온 빌딩의 방들을 멋있게 도배하여 이번 시즌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려 주고 있다.<sup>20</sup> 클럽 회원들은 따라서 모두 “테니스 라켓”과 “무해한 가십거리 한 보따리”를 지참하고 와서, 이렇게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첨부되고 있는데, 이틀 후에는 “여성 테니스 클럽”이 어제 시즌을 시작하여 참여자 모두가 진심으로 즐거워했다는 기사가 실려

18 William Griffis (1912), *Henry G. Appenzeller: A Modern Pioneer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p. 231.

19 필자가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발표된 개화기 국내 테니스 유입 연구 논문에서 이영호는 이 서울 유니온의 도서실을 “독서실”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 원문도 “Reading Room”이니 이 다목적 공간을 도서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였다. 이영호를 통해 서울 유니온이 당시에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매우 초기의 서양식 건물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영호(2022), 「개화기 서양인의 테니스 향유」, 『한국학연구』 64, pp. 556-557.

20 *The Independent*, 1896.4.16., p. 1.

있다.<sup>21</sup> 즉 이를 통해 이 두 기사에서 의미하고 있는 “시즌”이 “여성 테니스 클럽”의 시즌이며, 이 개화기 조선의 외국인 여성들이 바로 금요일 오후에 남성 회원들처럼 스포츠를 즐기고, 독서, 음악, 강의를 준비한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인 것이다.

1896년 4월 18일 기사와 관련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앞 장에서 인용한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 기사와 마찬가지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차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1896년 서울 유니온 클럽의 봄 시즌 첫날에는 그레이엄 부인이 차를 제공했는데, 이후에도 “테니스 날”에는 항상 4시부터 6시 사이에 차가 제공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1897년 1월 『디 인디펜던트』의 서울 유니온 기사도 마찬가지다. 1월 7일에는 이번 주 금요일(1월 8일) 도서관에서 존 실(John M. B. Sill, 1831~1901)의 영어 운문 구조에 관한 “세 번째 대화”가 진행되는데, 기포드 부인(Mrs. Gifford)이 차를 제공한다는 것이다.<sup>22</sup> 또 1월 28일 기사에는 그 주 금요일(1월 29)에 실의 네 번째 영어 운문 구조 대화가 진행되는데, 필립 제이손 부인(Mr. Philip Jaisohn)이 4시에 차를 제공한다는 것이다.<sup>23</sup>

스텔라 크리스천(Stella Christian)은 미국에서 여성 독서 클럽은 19세기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성의 첫 사회적인 모임에서 차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sup>24</sup> 19세기 미국은 산업화로 인해 공장에서 만들어진 우유와 햄을 먹기 시작했고, 각종 청소 도구와 수도, 가스 시설의 도입으로 중산층 가정에서는 여가 시간이 생겼는데,<sup>25</sup> 가정일에

21 *The Independent*, 1896.4.18., p. 1.

22 *The Independent*, 1897.1.7., p. 2.

23 *The Independent*, 1897.1.28., p. 2.

24 Stella Christian (1919), *The History of the Texas Federation of Women's Clubs*, Houston: Dealy-Adel-Elgin Company, p. 42.

25 Ruth Schwartz Cowan (1983), *More Work for Mother*, New York: Basic Books, p. 41.

서 떨어진 남자들이 “남자의 영역”인 집 바깥에 더 머물 때,<sup>26</sup> 여성들은 그들의 “영역”을 준수하면서도 집안일을 관장하는 그들의 조직 능력을 더욱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이를테면 독서 클럽과 같은 모임에서 다과를 담당하며 책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에서 차는 “차 한잔하면서”(over the tea cups)라는 일반화된 영어 표현이 말해 주듯, 심각하거나 중요한 이야기에 앞서 시행되는 행동과 연결되거나, 혹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즉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sup>27</sup> 즉 차는 여성들이 익숙한 일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세계로도 영역을 확장하는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보게 될 이 여성 클럽의 1년 행사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유니온 클럽 여성 회원들은 서로 돌아가며 자신의 순서에 따라 차를 준비한 것 같다.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여성 클럽 행사에 참여한 여성 중에는 선교사들이 많고, 사실상 각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선교사들이라는 점이다. 많은 선행연구가 개화기 여성 선교사들 중 특히 기혼 여성 선교사들이 “여성의 영역”에 머물며 19세기 서구 백인 중산층의 빅토리아적 가치관을 조선에 전파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sup>28</sup> 다음 장의 [표 1]을 통해 기혼 그리고 미혼 여성 모두가 이 서울 유니온 모임에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젠더 구분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빅토리아적 가치관이라는 말은 사실 19세기 대영제국의 문화적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들을 광범위하게 지시하는 표현이다. 영국에서는 특히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여성을 가정

26 Ruth Schwartz Cowan (1983), p. 63.

27 Elizabeth Long (2003), *Book Clubs: Women and the Uses of Reading in Everyday Lif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48.

28 류대영(2012), p. 248 참조.

(domesticity)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위치시키고 남성을 가정 밖의 공적인 영역에 위치시키는 이른바 “별개 영역”(seperate spheres) 이데올로기가 남녀 차별과 젠더 구분의 근거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sup>29</sup> 하지만 이 별개 영역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철저한 엄격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일종의 수사학적 표현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19세기 조선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들의 예를 통해서도 이들이 남편과 함께하였는지 아니면 미혼 여성의 삶을 살았는지에 관계없이 “여성의 영역”에만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즉 빅토리아 시대에도 젠더는 정형화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모하였던 것이라는 설명을 따라,<sup>31</sup> 조선에서의 선교라는 상황이 여성 클럽 활동으로 연결되며 19세기의 새로운 여성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sup>32</sup>

차를 준비하는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주변 사회의 여가 생활은 물론 “사회적이고도 문학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곳이 서울 유니온 여성 클럽의 사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이다. 이러한 여성 클럽들이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빅토리아적 가치들을 관용과 연민, 공감과 연결해 이후 여성 운동은 물론 서구의 각종 사회 개혁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29 박형지·설혜심(2004), 『제국주의와 남성성: 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 아카넷, p. 16.

30 선교사 매티 노블(1872~1956)의 글을 번역한 강선미가 노블이 “일과 가사 양육을 병행하는 주부”이기에 “‘신여성’의 한 전형”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참조할 수 있다[매티 윌콕스 노블(2010), 강선미·이양준 역, 『노블일지 1892~1934: 미 여선교사가 목격한 한국 근대사 42년간의 기록』, 이마고, p. 7]. 기혼 선교사 애니 베어드가 가사 일보다는 선교에 들어는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기록한 글도 참고할 수 있다[Annie L. A. Baird (1913),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pp. 22-25].

31 박형지·설혜심(2004), p. 17.

32 이는 19세기 미국 여성이 아마도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사회활동이 해외선교라는 통계 자료를 통해 더욱 유의미해진다. 1861년부터 1903년까지 해외선교에 참여한 미국 여성들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를 Helen Barrett Montgomery (1910), *Western Women in Eastern Lands: An Outline Study of Fifty Years of Woman's Work in Foreign Missions*, New York: Macmillan, p. 3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sup>33</sup> 여성 선교사들의 주도로 조선에서도 부녀자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남녀평등과 여성 인권을 자각하는 여성주의가 태동하였다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sup>34</sup> 본 연구를 통해서 “여성” 개념이 19세기 조선의 여선교사들이라는 문화적 상황을 통해서 근대적인 성격을 갖추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여성 선교사들의 서울 유니온 모임 중 문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활동에 주목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이들의 연간 활동을 우선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 4. 사회적이고도 문학적인 1년

서울 유니온의 여성 테니스 클럽은 따뜻한 계절에는 서울 유니온 건물 외 테니스장을 이용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고, 야외 활동이 힘든 겨울에는 실내에서 문학과 음악 활동을 한 것 같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 『디 인디펜던트』를 중심으로 『코리안 리포지터리』도 참조하여 아래에 서울 유니온 여성 테니스 클럽의 한 해 일정을 재구성해 보았다.

[표 1]과 [표 2] 두 가지를 통해 이 장에서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여성 테니스 클럽”이라는 이 여성 클럽의 이름이다. 『디 인디펜던트』에서는 1896년 4월 정도까지 “여성 테니스 클럽”으로 불리다가 6월경부터는 “여성 잔디 테니스 클럽”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여성 클럽은 [표 1]과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니스 활동 기록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테니스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잠시 살펴본 봄 시즌이 시작되면 테니스 라켓을

33 Elizabeth Long (2003), p. xvii; Sara M. Evans (1989), *Born for Liberty: A History of Women in America*, New York: Free Press, p. 3.

34 김향숙(2021), 「여성 선교사의 일지를 통해서 본 개화기 여성주의의 태동 배경」, 『젠더와 문화』, 14(1); 강선미(2004), 「근대 초기 조선과전 여선교사의 페미니즘: 조선 '신여성'의 특수성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 『신학사상』 125.

[표 1] 서울 유니온 여성 테니스 클럽의 1년(1896~1897년의 예)<sup>35</sup>

모임	내용	차 제공
1896년 12월 11일	[겨울 시즌 시작] 실과의 대화 1: “영어 운문의 구조”(6시)	조던 부인(5시)
	* 존 실: 주한미국공사, 라틴어/영어 교수 출신 <sup>36</sup> * 존 조던(John Jordan, 1852~1925): 주한영국 총영사, 부인은 정보 부족	
12월 18일	실과의 대화 2	헐버트 부인 <sup>37</sup>
	* “교육적인” 내용에 서울 유니온 회원들이 기뻐함 <sup>38</sup> *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 조선 최초의 영어 학교인 육영공원 교사로 공식 초청됨, 선교사, 부인은 정보 부족	
12월 25일	아이들 크리스마스 행사	언급 없음

35 각 [표]에서 모임 날짜를 기재한 줄에는 문헌에 쓰인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본 논문의 논의를 위해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각 모임 날짜의 아래 줄에 따로 서술하였다. 각 모임의 시간은 주로 금요일 5시이고, 이때 차는 4시에 제공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요일과 시간을 따로 표시하였다).

36 Egbert R. Isbell (1971), “A History of Eastern Michigan University: 1849~1965,” *University Archives Book Collection, Book 1*, p. 134. 참고로 1896년 겨울로 추측되는 여성 테니스 클럽 모임에서 실이 읊었다는 창작시를 발견하기도 하였다[*The Korean Repository* (1896), Volume III, Seoul: The Trilingual Press, p. 423]. 문학적 가치도 있어 보이지만, 시 속에 “선교사”, “서울”, “제물포”가 등장하고, 조선의 계절 변화도 다루고 있어, 조선에 거주한 외국인들의 문학 관련 모임이 작품 창작으로도 이어진 경우, 그러한 작품이 조선을 어떻게 담아 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추후 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겠다.

37 “헐버트 부인”은 헐버트 씨의 아내를 의미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 선교사 역사서만으로는 개회기 조선에 입국한 여성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름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부부 선교사가 입국한 경우, 남편 선교사의 행적에 비해 아내 선교사에 대한 서술은 너무나 부족했는데, 다음과 같이 여성 선교사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책이나 최근 정보들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공병호(2019),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공병호연구소; 캐롤 레이더(2015), 이원희 역, 『다큐멘터리 선교역사소설: 엘라 아펜젤가 울린 사랑의 종』, 도서출판 준; 정신여자고등학교 사료연구위원회(2009), 『애니 엘리스: 한국에 온 첫 여의료선교사』, 정신여자고등학교 사료연구위원회; 한국기독교사연구소, 『내한 선교사』, 평양대부흥; 이재정(1990), 『대한성공회백년사』, 대한성공회 출판부.

38 *The Independent*, 1896.12.19., p. 1.

모임	내용	차 제공
12월 26일 (토요일)	크리스마스트리 기부와 꾸미기(장난감과 선물): 빈톤 부인의 “리더쉽”이 언급됨, <sup>39</sup> 아이들 노래, 산타클로스 행사, 회장 베베르의 감사 말	실 부인
	<p>* 르피샤 빈톤(Lefitia C. Vinton, 1837~1903): 선교사, 남편(C. C. Vinton, 1859~1936)은 의료선교사(제중원 원장)</p> <p>* K. N. 베베르(K. N. Waeber, 1841~1910): 주한 러시아 공사</p> <p>* 샬리 실(Sally Beaumont Sill): 존 실의 부인</p>	
1897년 1월 8일	실과의 대화 3	기포드 부인
	* 메리 헤이든 기포드(Mary Hayden Gifford, 1857~1900): 선교사, 정신여학당 2대 학장	
1월 15일	콘서트, 타블로 만들기	페인 양과 프라이 양
	<p>* 조세핀 페인(Josephine O. Paine, 1869~1909): 선교사, 이화학당 3대 학장</p> <p>* 룰루 프라이(Lulu E. Frey, 1868~1921): 선교사, 이화학당 4대 학장</p>	
1월 29일	실과의 대화 4	필립 제이슨 부인
	* 뮤리엘 암스트롱(Muriel Armstorng): 미국 철도우편국 창설자가 부친으로 유명한 미국 정치 가문 출신, 남편은 『독립신문』 발간자 서제펠(Philip Jaisohn)	
2월 5일	콘서트	빈톤 부인
	<p>* 피아노 트리오: 엘리스 아펜젤러(Alice Appenzeller, 1885~1950,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 해리 알렌과 모리스 알렌(Harry &amp; Maurice Allen, 알렌 선교사 부부의 자녀)</p> <p>* 남성 참여자:</p> <p>1) D. A. 벙커(D. A. Bunker, 1853~1932, 선교사, 육영공원 초대 교사)와 헐버트 그리고 헐버트 부인의 삼중창</p> <p>2) 스타인(Mr. Stein, 주한 러시아 공사관 서기관)의 바이올린 연주</p> <p>3) 헐버트 책 낭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Through Death’s Dark Vale)라는 구절이 담긴 성경 시편 23편 4절을 읽은 듯함</p> <p>* 2주에 1번이 아니라 매주 이런 행사가 개최되었으면 한다는 평가가 담긴 기사가 실림<sup>40</sup></p>	

39 The Independent, 1896.12.29., p. 1.

모임	내용	차 제공
2월 12일	콘서트 * 아펜젤러 부인이 연출하였고, 아펜젤러 부인은 책도 낭독함. * 엘라 아펜젤러(Ella Jane Dodge Appenzeller, 1854~1916): 선교사	언급 없음
2월 19일	잘리 여사(Madam Jarley, 정보 없음) 왁스 작품 전시: “활 든 큐피드”, “빨간 모자” 등 *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1832~1909): 선교사, 아들과 며느리도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 이화학당 초대 학장	스크랜튼 대부인 <sup>41</sup> (4시 30분)
2월 26일	브라운 씨 책 낭독 * 브라운 낭독 작품: 1)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1892)의 「시냇물」(The Brook) 2) 영국 시인 피제랄드(Edward Fitzgerald, 1808~1883)가 1859년 영어로 처음 번역해 큰 인기를 얻고 이후 영미 문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하이얌(Omar Khayyam, 1048~1131)의 시 [시즌 끝] * 테니슨 시 낭송에 모두가 즐거워했으며, 특히 하이얌의 시는 낭송으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시 중 하나라는 평이 실림. <sup>42</sup> * 존 맥레비 브라운(John McLeavy Brown, 1835~1926): 영국인, 조선 해관 총세무사 및 탁지부(재무부) 고문 * 캐서린 왓볼드(Katherine C. Wambold, 1866~1948): 선교사, 정신여학당 교사	왓볼드 양
4월 20일	정기 총회: 현재 회장 그레이엄 부인, 총무 병커 부인 * L. B. 그레이엄(L. B. Graham): 미 공사관 소속, 부인의 “리더쉽”이 사료에 언급됨. <sup>43</sup> * 애니 엘러스 병커(Annie Ellers Bunker, 1860~1938): 의료 선교사(명성황후 시의), 병커와 서울에서 결혼하여 조선에서 최초로 결혼한 서양인 부부, 정신여학당 초대 학장	언급 없음
4월 27일	[봄 시즌 시작]	그레이엄 부인

40 *The Independent*, 1897.2.9., p. 3.

41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 텍스트에는 원문“Scranton”이 “Seranton”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The Independent*, 1897.2.18., p. 3).

42 *The Independent*, 1897.3.2., p. 2.

43 *The Korean Repository* (1896), p. 423.

모임	내용	차 제공
9월 3일	[가을 시즌 시작]	그레이엄 부인, 실 부인
10월 29일	겨울 프로그램 구성 모임	언급 없음
11월 25일	정기 총회: 회장 조던 부인, 부회장 알렌 부인 선출 겨울 시즌 프로그램 발표: 오락 6회와 셰익스피어 6회	언급 없음
	* 프란시스 알렌(Frances A. Allen, 1859~1948): 알렌 부인	

[표 2] 서울 유니온 여성 테니스 클럽의 1년(1897~1898년의 예)

모임	내용	차 제공
1897년 11월 26일	[겨울 시즌 시작] 오락 1: 콘서트 외	조던 부인
	* 언더우드 박사(Dr. H. G. Underwood, 1859~1916, 선교사)가 브라우닝 시를 낭독하였는데 아름답고 감성적이었으며, 함께 낭독한 두 흑인의 짧은 대화문도 매우 웃겼다는 후기가 있음. <sup>44</sup> * 벙커 씨 소유 미술품 소개 * 한국의 신기한 물건도 함께 감상	
12월 3일	셰익스피어 1: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 1897년 12월 21일 『디 인디펜던트』를 통해 유추해 내었음.	
12월 10일	오락 2: 콘서트 그리고 켄뮤어 씨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미국과 유럽의 건물과 흥미로운 중국과 한국의 모습을 슬라이드로 보여 줌.	아펜젤러 부인
	* 알렉산더 켄뮤어(Alexander Kenmure, 1856~1910): 선교사, 영국성공회	
12월 17일	셰익스피어 2	켄뮤어 부인
	* 애니 켄뮤어(Annie Kenmure, 1857~1937): 정보 부족 * 모임 참여가 확인되는 사람들: 벙커 부인, 아펜젤러 부인, 브라운, 허버트, 켄뮤어, 언더우드	

44 The Independent, 1897.11.30., p. 2.

모임	내용	차 제공
12월 24일	오락 3: 아이들 크리스마스 행사, 크리스마스 파이도 제공	허버트 부인
12월 31일	셰익스피어 3: 격주 모임으로 유추한 것임	
1898년 1월 7일	오락 4: 아이들 연극 「숲속의 아기들」(The Babes in the Wood), 파크힐 양 지도, 조던 부인과 쿠크 박사의 도움	카토 부인: 연극 막간에 아이 스크림과 케이크도 제공
	* 파크힐 양(Miss Parkhill): 정보 부족 * 쿠크 박사(Dr. Lois Rosa Cooke): 성베드로병원 여의사, 정보 부족 <sup>45</sup> * 카토 부인(Mrs. Kato): 정보 부족, 1897년 7월에 만들어진 일본 여성 자선 회의 회장으로 주한일본 영사 부인인 듯하다.	
1월 14일	셰익스피어 4	커틀러 박사, 로드와일러 양
	* 메리 커틀러(Mary M. Cutler, 1865~1948): 선교사, 의사 * 루이자 로드와일러(Louisa C. Rothweiler, 1853~1921): 선교사, 이화학당 2대 학장 <sup>46</sup>	
1월 21일	오락 5: 콘서트 그리고 “한국어 교훈”이라 는 한국 지명/인명 게임	해리스 박사, 피어스 양
	* 릴리안 해리스 (Lillian A. Harris, 1865~1902): 선교사, 의사 * 피어스 양(Miss Pierce): 정보 부족	
1월 28일	셰익스피어 5: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무어 부인
	* 라로즈 무어(LaRose D. E. Moore, 1861~1923): 선교사	
2월 4일	셰익스피어 6	에비슨 부인
	* 제니 에비슨(Jennie Avison, 1898~1985): 선교사, 남편(Oliver R. Avison) 은 제중원 의사	

45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에는 “Cooke”가 “Couke”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The Independent*, 1898.1.11., p. 2).

46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에는 “Rothweiler”가 “Rothweiter”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The Independent*, 1898.1.13., p. 2).

모임	내용	차 제공
2월 11일	오락 6: 콘서트	조던 부인(4시 30분)
[겨울 시즌 끝]	<p>* 아펜첼러 부인 낭독: 존 위티에(John Withies, ?~1873, 스코틀랜드 시인)의 「럭나우의 파이프」 (The Pipes at Lucknow)</p> <p>* 남성 참여자: 1) 바우링(Mr. Bowring, 정보 부족)이 허버트 부인과 듀엣 연주를 하고 발 독 박사(Dr. Edward H. Baldock, 성베드로병원 의사)와 듀엣 연주도 함 2) 병커 노래 3) 브라운(당시 서울 유니온 회장) 책 낭독</p> <p>* 서울 유니온 회장(브라운)이 여성 테니스 클럽의 겨울 시즌 활동에 참여 한 소감을 말했는데, 그중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에 대한 아쉬움이 다음과 같이 표현됨: 독서 모임 결석자가 많아 로미오는 줄리엣 없는 발코니를 향 해 대사를 읊어야만 했고, 햄릿 또한 유령을 함께 연기해야 했다.<sup>47</sup></p>	
4월 12일	[봄 시즌 시작](화요일)	
11월 14일	겨울 프로그램 구성 모임: 조던 부인 집(월요일)	

들고 모이라는 알림 기사와 테니스장은 항상 차 있고 인기라는 정도의 기사만 찾을 수 있다.<sup>48</sup> 사실 『코리아 리포지터리』 1896년 4월호에는 이 모임의 이름이 “서울 유니온의 여성들”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sup>49</sup> 기포드, 페인, 프라이, 스크랜튼, 왓볼드, 로드와일러 등 이 여성 클럽에 당시에 설립된 미션 스쿨의 선생님들이 많았고, 테니스와 관련된 국내 최초의 학교체육 기록도 정종선학당 테니스부(1891)라고 하니,<sup>50</sup> 이들이 테니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 스포츠로 즐겼다는 사실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테니스는

47 *The Independent*, 1898.2.15., p. 2.

48 *The Independent*, 1898.11.17., p. 3.

49 *The Korean Repository* (1896), p. 181.

50 정종석(2010), 「개화기 미션 스쿨 스포츠 활동의 체육사적 의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0.

당시 국내 외국인들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sup>51</sup> 미국 중산층에서 유행하던 운동 종목을 그대로 들여왔다는 측면도 있지만,<sup>52</sup> 스포츠를 하나의 여가 활동으로 독서 등의 지적인 활동과 더불어 즐기려던 신여성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sup>53</sup> 그렇지만 그들의 1년 모임에서 테니스보다는 다른 활동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 여성들의 모임이 “사회적이고도 문학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54</sup> 따라서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개화기 외국인 여성 선교사 모임의 사회적이고도 문학적인 성격을 이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던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과 연결하여 살펴며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5.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

앞 장의 [표 1]에서 1897년 겨울 시즌 회의가 진행된 것을 보면,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은 앞선 시즌의 노하우를 축적해 서울 유니온의 여성들이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1896년 겨울 시즌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임에 문학이 빠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달에 걸쳐 진행된 실의 “영어 운문 구조” 시간에는 영미시가 많이 소개되었고, 도서실을 가득 채울 만큼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적인” 모임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sup>55</sup> 사실 여성 선교사들은 대

51 이영호(2022), p. 545.

52 류대영(2001),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p. 62.

53 Carroll Smith-Rosenberg (1985), *Disorderly Conduct: Visions of Gender in Victoria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76.

54 앞에서 밝혔듯이 이는 『코리안 리포지터리』의 표현인데, 사실 『디 인디펜던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실려 있다(*The Independent*, 1898.11.17., p. 3).

55 *The Independent*, 1897.1.9., p. 2.

부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상당한 학력의 소유자였다.<sup>56</sup> 미국에서는 여자대학교가 1870년에서 1880년대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남자들만 다니던 대학들도 이 무렵부터 하나둘씩 여성에게 입학 허가를 내리기 시작하였다.<sup>57</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바탕이 되어 여자 선교사들도 해외선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는데,<sup>58</sup> 독서는 이들이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 나가는 매우 주요 수단이었다. 미국은 워낙 넓은데다, 여성 교육열이 단기간에 매우 높아졌음에도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그만큼 빨리 갖추어지지 못해 지역 여성들을 중심으로 독서 클럽이 활성화되었고,<sup>59</sup> 그래서 이 무렵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유년 시절을 보낸 여자 선교사들은 독서 클럽에 직접적으로 혹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미국의 여성 독서 클럽들은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었기에, 문학 독서 모임은 조선의 여성 선교사들에게 매우 “교육적인” 일일 수 있는 것이었다.

1897년 3월 2일의 『디 인디펜던트』에는 이 여성 클럽에 관한 기사가 예외적으로 “논설” 첫 기사와 “지역 기사”로 두 개가 실린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적음에도 “문명화된 삶의 절대적인 필수품”인 문학 강좌와 독서, 연극 공연 등을 준비하는 이들 여성의 “조직 능력”과 “교육성”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이 특히 “논설”의 핵심이다.<sup>60</sup> 또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1896년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트리 기증식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빈톤 부인의 “리더쉽”과 1897년 그레이엄 부인의 “리더쉽”이 언급되는 글

56 이영미(2022), 「미국 최초의 한국사 전공자 해롤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의 생애와 한국 연구」, 『한국학연구』 64, p. 644.

57 Carroll Smith-Rosenberg (1985), p. 249.

58 김향숙(2021), p. 83.

59 Elizabeth Long (2003), p. 37.

60 *The Independent*, 1897.3.2., p. 2.

도 찾을 수 있다. 이 클럽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명화된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 또한 키워 나간 것인데, 개인의 능력도 중요했겠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차를 돌아가며 준비하는 등 여성 공동체로서의 연대적인 움직임도 돋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 거듭되며 문학 모임도 더욱 규칙적으로 개최하며 그 외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추구한 것이다.

사실 이 모임의 교육적인 성격은 조선에서 자라나는 선교사의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엘리스 아펜젤러와 해리 알렌, 모리스 알렌 처럼 1896년 시즌에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며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표 1). 하지만 1897년 시즌에는 여성 클럽 선교사들의 지도로 지금은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인기 있는 일러스트 작가였을 랜돌프 칼데콧(Randolph Caldecott, 1846~1886)<sup>61</sup>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접하며, 당시 유행하는 동화책을 경험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sup>62</sup> 물론 이 아이들은 큐피드, 빨간 모자 이야기 등 옛 서양의 이야기도 그들의 어머니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서울 여성 클럽의 모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었다(표 1).

다시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여성 클럽이 셰익스피어라는 한 작가의 작품을 시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섯 번에 걸쳐 꾸준히 읽겠다고 계획을 세운 점은 이때 셰익스피어가 유사 종교로 여겨질 만큼 신성화되고 있었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당시 셰익스피어를 읽는다는 행위는 19세기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언어인 영어로 쓰

61 Maurice Sendak (1988), “Randolph Caldecott,” *Caldecott & Co.: Notes on Books and Pictures*, New York: Noonday Press, pp. 21-25.

62 조선의 여자 선교사들의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영미(2022), p. 644 및 Annie L. A. Baird (1913), pp. 52-57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들은 선교사의 아이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등교육을 받기 원했고, 10대 중반이 된 선교사의 자녀들은 실제 미국에 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였다.

여진 문학 중 최고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텍스트를 향유함으로써, 마치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듯, 셰익스피어를 통해 세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물론 인간의 본성까지도 성찰할 수 있다는 문화제국주의적인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었다.<sup>63</sup> 19세기 미국의 많은 여성 독서 클럽 모임의 읽기 목록에도 셰익스피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sup>64</sup> 무대 위 연극으로서의 셰익스피어가 인쇄기술의 발달과 문화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 책으로 자리 잡는 때를 보여 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로 대변되는 문학이 독서 모임이라는 외형을 통해 여성이 “여성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통로로도 작용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특히 조선에서 서울 유니온 클럽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셰익스피어를 읽을 수도 있었다(표 21). 말하자면 벵커 부인, 아펜젤러 부인, 브라운, 허버트, 켄뮤어, 언더우드는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과 같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코리올레이너스』와 『줄리어스 시저』와 같이 국가와 영웅, 민중에 대해 논하는 작품도 원한다면 남성들과 함께 집 바깥에서 읽을 수 있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무대에 올려진 최초의 셰익스피어 작품이 『줄리어스 시저』로 알려져 있는데,<sup>65</sup> 통치자를 살해한 동기를 밝히는 브루터스의 명연설이 담긴 작품을 고등학교 학생

63 이에 관한 연구는 셰익스피어 전공 영역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에 몇 가지 저서만 인용한다: Clara Calvo and Coppélia (2015), *Celebrating Shakespeare: Commemoration and Cultural Mem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hn Adrian Poole (2004), *Shakespeare and the Victorians*, London: Bloomsbury; David Johnson (1996), *Shakespeare and South Africa*, Oxford: Clarendon Press; Michael D. Bristol (1990), *Shakespeare's America, America's Shakespeare*, London: Routledge. 사실 『디 인디펜던트』 1897년 7월 29일 1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영어] 세계의 공용어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항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셰익스피어의 언어만을 구사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에는 이 문장의 “transact”(거래)가 “transast”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

64 Elizabeth Long (2003), p. 46.

65 1925년 12월 12일 경성고등상업학교 어학부에서 올린 원어극 『줄리어스 시이저』이다[신정옥(1998), p. 296].

들이 일체 치하에 올렸다고 하니, 제국주의와 식민지 상황에서 『코리올레이너스』와 『줄리어스 시저』가 자주 무대에 올려지는 다른 예들과 함께 이 조선에서의 셰익스피어 독서 목록도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sup>66</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 유니온 클럽 회원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작품을 읽는다는 행위는 특수한 문화적 행동으로서의 독서행위를 상기시킨다. 셰익스피어를 읽는다는 행위는 조선의 여선교사들에게 교육의 수단이고, 문명화의 방법이었으며, 아이 양육의 고민이자, 문화적 권위를 획득해 그들의 사회적인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표 2]가 끝나는 무렵인 18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디 인디펜던트』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린다.

문구. 『디 인디펜던트』 사무실에서 다양한 최상급 문구용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봉투, 잉크, 펜, 초대장, 영어 성경, 복사-책, 풀, 지우개, 전 표 장부.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 외 흥미로운 책 등등등. (p. 4)

그리고 이보다 앞선 1897년 9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디 인디펜던트』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려 있다.

문구. 『디 인디펜던트』 사무실에서 다양한 최상급 문구용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봉투, 잉크, 펜, 초대장, 영어 성경, 복사-책 등등등. (p. 4)

서울 유니온 클럽 회원인 샬리 실이 가족,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독서용 책을 힘들게 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들이 독서를 상당히 중요히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도

66 Marguerite de Waal (2020), "Close Encounters: Staging *Julius Caesar*, *Coriolanus* and *Antony and Cleopatra* in Contemporary South Africa," *Shakespeare in Southern Africa* 33 참조.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책을 돌려보고 심지어 책 “구결”까지도 하였는데,<sup>67</sup>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 성경” 다음으로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구매 욕구가 가장 컸던 책은 아마도 위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셰익스피어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영미 문학 작품을 구하기 어려운 조선의 상황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셰익스피어는 19세기 말 조선에서 그나마 가장 쉽게 구할 수도 있었던 영미 문학책이었던 것이다.

1897년 겨울 시즌을 마무리하는 행사에 당시 서울 유니온 클럽의 회장이었던 브라운은 셰익스피어 모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바로 결석자가 많아 텍스트 낭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를 다 함께 읽겠다는 야심 찬 기획이 왜 만족스럽게 실현되지 못했는지 아쉽게도 그 기록을 찾아내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독서 모임의 동기가 되기보다는, 신경화된 정전으로서의 “아우라”를 경험하는 것이 셰익스피어 읽기 모임에 참여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을 것이기에, 독서 모임 신청자가 이후 결석을 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sup>68</sup> 사실 여성 클럽은 콘서트 프로그램 사이마다 문학 작품을 읽는 시간을 넣는다. 그리고 이때 회원들이 주로 읽은 작품은 동시대 시인(테니슨, 브라우닝, 윌티에)이나 베스트셀러 책(하이얌) 속의 시들이었다.<sup>69</sup>

[표 2]의 마지막 행을 보면 1898년 겨울 시즌을 준비하는 서울 유니온 여성 회원들의 모임이 11월 14일에 열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898년 11월 17일 『디 인디펜던트』 기사를 살펴보면, 『디 인디펜던트』가 한국

67 Robert Neff (2013), *Letters from Joseon: 19th Century Korea through the Eyes of an American Ambassador's Wife*, Seoul Selection, p. 205.

68 19세기 미국 여성 클럽에서 “주저하며 마지못해” 셰익스피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예를 Elizabeth Long (2003), p. 46에서 볼 수 있다.

69 [표 2]에서 볼 수 있는 윌티에의 「럭나우의 파이프」의 경우, 인도 세포이 항쟁을 제국주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시인데, 개화기 조선에서 외국인들이 읽은 문학작품 목록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행위로서의 독서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더욱 다루기 위해 서울 유니온 관련 기사를 서서히 줄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한 클럽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다.<sup>70</sup> 『독립신문』 창간호의 발간 취지가 “조선 인민”의 “소견과 지혜가 진보”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영문판 창간호 논설에는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신문이 발행되면 영어를 아는 한국인들이 영어 실력을 기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이 신문을 영어로 읽은 한국인들이 외국인 여성들이 회원으로 있다는 클럽과 그곳에서 이들이 주도하는 “사회적이고도 문학적인” 활동 소식을 접하며 “소견과 지혜가 진보”되었는지 살필 수 있다면, 개화기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 특히 최근 연구가 활발한 개화기 여성 선교사들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근대적인 “여성” 개념 형성에 조선이라는 사회가, 선교라는 활동이, 그것에 지원한 여자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들의 문학 읽기 활동이 진보적인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만족하며, 추후 더 많은 소견과 지혜를 듣게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자료

- 공병호(2019),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공병호연구소, 『독립신문』, 獨立新聞社.
- 이재정(1990), 『대한성공회백년사』, 대한성공회 출판부.
- 정신여자고등학교 사료연구위원회(2009), 『애니 엘러스: 한국에 온 첫 여의료선교사』, 정신여자고등학교 사료연구위원회.
- 朝陽報社(1906), 『朝陽報: 第貳號』, 국회전자도서관.
- 한국기독교사연구소, 「내한 선교사」, 평양대부흥, 2022.7.20. <http://www.1907revival>.

70 *The Independent*, 1897. 11. 14., p. 3.

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view\_type=tm

Allen, Horace Newton (1901), *A Chronological Index: Some of the Chief Events in the Foreign Intercourse of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Twentieth Century*, Seoul: Press of Methodist Publishing House.

*The Independent*, 獨立新聞社.

Isbell, Egbert R. (1971), "A History of Eastern Michigan University: 1849~1965," *University Archives Book Collection, Book 1*.

*The Korean Repository* (1897), Volume IV, New York: Paragon Book Reprint Corp.

*The Korean Repository* (1896), Volume III, Seoul: The Trilingual Press.

## 논저

강선미(2004), 「근대 초기 조선과건 여성교사의 페미니즘: 조선 '신여성'의 특수성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 『신학사상』 125, pp. 65-92.

고예진(2012), 「애니 베어드(Annie Luaurie Baird)의 저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이해양상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3(1), pp. 9-33.

김성은(2007), 「로제 타 홀의 조선여의사 양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pp. 5-43.

김향숙(2021), 「여성 선교사의 일지를 통해서 본 개화기 여성주의의 태동 배경」, 『젠더와 문화』 14(1), pp. 75-109.

노블, 매티 윌콕스(2010), 강선미·이양준 역, 「서문」, 『노블일지 1892~1934: 미 여성교사가 목격한 한국 근대사 42년간의 기록』, 이마고.

레이더, 캐롤(2015), 이원희 역, 『다큐멘터리 선교역사소설: 엘라 아펜젤러가 올린 사랑의 종』, 도서출판 준.

류대영(2017), 「해방 이전 한국 개신교 여성에 관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pp. 167-207.

류대영(2012), 「매티 노블(Mattie W. Noble)의 일지: 한 부인 선교사의 삶과 '여성의 영역(Women's Sphere)」, 『東方學志』 160.

류대영(2001),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박보경(2017),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49(4), pp. 283-308.

박형지·설혜심(2004), 『제국주의와 남성성: 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 아카넷.

신정옥(1998), 『세익스피어 한국에 오다: 세익스피어의 韓國受容過程研究』, 백산출판사.

안신(2015), 「메리 스크랜튼과 클라라 하워드의 교육선교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28.

오지석(2001), 「근대전환기 내한선교사의 선교사역과 한국문화이해: 안애리(安愛理)의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1913)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4), pp. 963-980.

유영렬·윤정란(2004),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 경인한국학연구총서.

- 유재천(1996), 「『독립신문』의 국문판과 영문판 논설 비교분석」, 『언론과 사회』 14, pp. 111-141.
- 윤정란(2009), 「19세기말 조선의 안방을 찾은 미국 여성의 욕망: 여선교사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ton Underwood)를 중심으로」, 『史林』 34, pp. 105-134.
- 이영미(2022), 「미국 최초의 한국사 전공자 해롤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의 생애와 한국 연구」, 『한국학연구』 64, pp. 639-667.
- 이영호(2022), 「개화기 서양인의 테니스 향유」, 『한국학연구』 64, pp. 545-578.
- 이정순(2012), 「한국에 온 서양 여성선교사들(1886년~1955년)의 삶과 사역에 관한 고찰」, 『복음과 선교』 18, pp. 47-76.
- 정종석(2010), 『개화기 미션 스쿨 스포츠 활동의 체육사적 의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유리(2022), 「국내 셰익스피어 유입사 다시 보기: 1894년경의 장봉환의 사례에 관하여」, *Shakespeare Review* 58(2), pp. 149-168.
- 채백(2006), 『독립신문 연구』, 한나래.
- Baird, Annie L. A. (1913),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Bristol, Michael D. (1990), *Shakespeare's America, America's Shakespeare*, London: Routledge.
- Calvo, Clara and Coppélia (2015), *Celebrating Shakespeare: Commemoration and Cultural Mem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eutzenberg, Jan (2015), "Foundlings: Shakespeare Readings in 19th Century Korea (Theatre and Globalization 3)," 2015.6.13., *Seoul Stages*, 2022.7.20. <https://seoulstages.wordpress.com/2015/06/13/foundlings-shakespeare-readings-in-19th-century-korea-theatre-and-globalization-3/>
- Christian, Stella (1919), *The History of the Texas Federation of Women's Clubs*, Houston: Dealy-Adel-Elgin Company.
- Cowan, Ruth Schwartz (1983), *More Work for Mother*, New York: Basic Books.
- De Waal, Marguerite (2020), "Close Encounters: Staging *Julius Caesar*, *Coriolanus* and *Antony and Cleopatra* in Contemporary South Africa," *Shakespeare in Southern Africa* 33.
- Evans, Evans (1989), *Born for Liberty: A History of Women in America*, New York: Free Press.
- Griffis, William Elliot (1912), *Henry G. Appenzeller: A Modern Pioneer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 Johnson, David (1996), *Shakespeare and South Africa*, Oxford: Clarendon Press.
- Long, Elizabeth (2003), *Book Clubs: Women and the Uses of Reading in Everyday Lif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ntgomery, Helen Barrett (1910), *Western Women in Eastern Lands: An Outline Study of Fifty Years of Woman's Work in Foreign Missions*, New York: Macmillan.

- Maurice Sendak (1988), "Randolph Caldecott," *Caldecott & Co.: Notes on Books and Pictures*, New York: Noonday Press.
- Neff, Robert (2013), *Letters from Joseon: 19th Century Korea through the Eyes of an American Ambassador's Wife*, Seoul Selection.
- Poole, Kahn Adrian (2004), *Shakespeare and the Victorians*, London: Bloomsbury.
- Smith-Rosenberg, Carroll (1985), *Disorderly Conduct: Visions of Gender in Victoria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22년 8월 1일, 심사 완료일: 2022년 8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14일

## ABSTRACT

# Social and Literary: Female Missionaries in Joseon

Ji, Yuri\*

From Their Shakespeare  
Readings in the Seoul Union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the Victorian gender formation did not originate in isolation in the West but rather emerg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est and the others. The concept of the Victorian domesticity is also found to be slippery and ambiguous. This study traces the activities of foreign women—especially of female missionaries—of the Seoul Union in Joseon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By examining the social and literary character of the activities, this paper demonstrates the complex dynamics of gender and culture, which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distinct form of a “new woman.” As a foundation study of the subject, this paper also presents literature information and a chronological overview. In dealing with Shakespeare readings of the Seoul Union, it also confirms that Shakespeare was introduced into Korea before the twentieth century.

**Keywords** Joseon, Female Missionaries, The Seoul Union, Literature, Reading, Shakespeare in Korea

---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Foreign Litera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